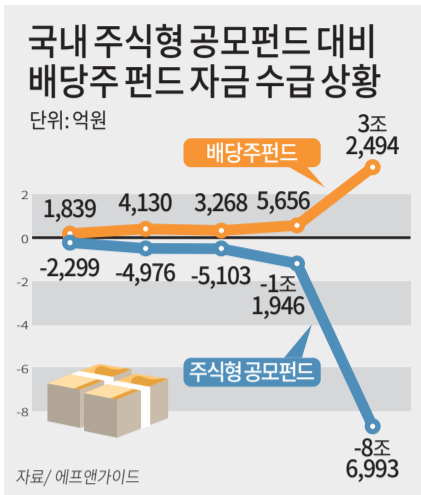


배당주, 3개월간 4130억 유입... 변동성 장세 대안 부상

테이퍼링 시기 연말~내년초 전망
코스피 영업이익 전년비 60% ↑
“여름이 배당주 성과 가장 좋은 시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으로 언급되며 배당주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테이퍼링이 이뤄지면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통상 이 시기에 배당주가 강세를 보였던 전례가 있어서다. 코스피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당 여력도 높다는 분석이다. 배당이자 등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배당주 펀드에도 자금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설정액 10억원 이상 배당주 펀드 260개에 413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한 달간 1839억원이 들어오는 등

자금 유입세가 가팔라지는 중이다. 배당주펀드는 그동안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자금유출을 주도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직접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최근 1년 동안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8조6993억원이 빠져나갔다. 인덱스펀드(3조5982억원)보다 액티브 펀드(5조1010억원)의 유출 속도가 거셌는데 이 중 63% 규모인 3조2494억

원을 배당주 펀드가 차지했다. 상황은 반전됐다. 올해부터 자금 유출 속도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수급상황이 역전된 것. 금융과 철강 등 배당주 펀드가 다수 편입한 업종의 주가 강세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계절적 특성도 한몫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주 펀드의 성과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6~8월인 여름”이라고 했다. 12월 결산이 많은 국내 기업 특성상 배당이 가까워진 연말에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고, 연초에는 상승 재료가 소멸해 수익률이 부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좋은 배당주펀드의 전제 조건은 배당수익률이 높고 스타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업종별 비중이 편중되지 않은 배당성장주를 많이 편입한 펀드일수록 좋다”고 추천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초안화적 통화정책 종료기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온다. 메리 테일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최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이퍼링 시작 시점을 내년 초로 내다봤던 시장 예상과 달리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배당수익률이 투자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예금 상품이 없다는 점 역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는 요인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앙은행들이 급작스럽게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지급준비율 상향, 자산매입 축소

등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할 전망”이라며 “증시 전체의 펀더멘털이 유동성에만 의존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당순이익(EPS) 성장보다는 배당수익률에 근거한 투자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공포로 단기 조정에 들어간 글로벌 증시 상황도 배당주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공포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효한 대안으로 주목된다. 강현기 DB금융투자투자전략팀장은 “최근 나타난 원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는 적절한 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마당에 내수주를 권하기도 어렵다”면서도 “일정한 모멘텀을 갖춰나가고 있는 배당주가 변동성 관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현대오일뱅크, 코스피 상장 도전... 기업가치 8兆 이상 추정

주관사 선정 위한 RFP 발송
장외시장서 6만원대에 거래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가 세번째 상장에도 도전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업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내년 공모주 시장에서 조(兆) 단위 ‘대어(大魚)’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국내외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했다. 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이 목표다.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번째 상장에도 도전한다. 지난 2012년에는 유럽법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정제마진 약세로 실적이 악화돼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의 공모 규모는 1조5000억원~2조원 규모였다. 이어 2017년에는 공모 규모 2조~3조

원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강화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경색돼 있는 데다 기관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기업설명회(IR)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아 상장 추진이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6개월 이내에 공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자금 조달

루트를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로 선회했다. 프리IPO는 기업의 상장을 약속하는 대신 일정한 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2019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 기업 아람코에게 지분 17%를 1조3749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의 기업가치는 8조10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IB업계가 현대오일뱅크의 기업 가치를 최소 8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업 실적 개선도 IPO 흥행 요건으로 꼽힌다. 지난 1분기에는 순이익 1936억원으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인 5933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18일 증권플러스비상장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장외주식시장에서 6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총 발행주

식수가 2억4508만2422주임을 감안했을 때 추정 시가총액은 14조7049억원 규모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계열사인 현대오일터미널의 지분을 매각한다. 기존 화학 에너지 중심 사업에서 수소 등 신성장 에너지 사업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오일터미널의 지분을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현대중공업지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양측이 평가한 현대오일터미널의 시장 가치는 2000억원 수준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8월 말까지 현대오일터미널의 전체 지분 90%를 매각하고, 잔여 지분 10%를 보유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기존 정유사업 구조 개편과 친환경 미래사업 집중을 위해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분양 캘린더

전국 6곳 2667가구 분양

지난주에는 전국에서 835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이뤄졌지만 이번 주는 266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돼 분양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18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셋째주에는 전국 6곳, 총 2667가구(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행복주택 제외)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오창반도유보라 퍼스티지’가 1순위 청약신청을 받고 충남 당진시에서는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가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5곳에서 개관한다.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 아파트가 경기 고양시에서는 ‘더샵 일산 에로이’ 오피스텔 등이 건본주택을 선보인다. 당첨자 발표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크레스트’ 등 20곳에서, 계약은 9곳에서 진행된다. 한편 3기 신도시 1차 청약일정도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7월 28일~8월 3일, 해당 지역은 8월 4일~5일, 1순위 수도권 거주자는 8월 6일~10일까지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7월 28일~8월 3일, 수도권은 8월 4일~11일까지 청약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 예정이다. /이원혁 수습기자 wonster@

글로벌 車 반도체업체 고객사 확보...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

metro 관심종목
해성디에스

2021·2022년 최대실적 경신 전망
해성디에스가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해성디에스가 공시한 2분기 잠정실적(연결기준)을 보면 매출액은 1594억원, 영업이익은 182억원,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24.3%, 43.1%씩 증가했

다.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시장의 기존 컨센서스보다 28.18%, 45.30% 증가한 수치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호실적의 요인으로 “자동차용 반도체와 패키징 기반 사업 모두 시장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과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분을 판가에 빠르게 연동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깜짝 실적 발표에 지난 16일 해성디에스는 전 거래일보다 400원(0.95%) 오른 4만2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해성디에스 주가는 지난 5일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연금과 기관 등이 해성디에스 주식 53만주를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

국인은 37만주를 순매도했다. 호실적 예상에 증권사들은 연이어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보면 하나금융투자가 5만2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해성디에스의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이어 유진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5만5000원, 하이투자가 4만8600원으로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투자자의견은 모두 ‘매수’다. 해성디에스는 2분기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갈 전망이다. 해성디에스는 반도체 후공정 구조재료인 리드프레임과 패키징 기판을 주로 생산한다.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은 직전 분기 기준으로 전 매출액의 71.8%(897억)를 차지한 리드프레임이

다. 이 중 자동차 전장에 포함되는 리드프레임 2분기 매출액이 5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로 크게 증가했다. 해성디에스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이 나오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김복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해성디에스가 “자동차용 반도체 글로벌 상위 5개사 중 3개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고부가 제품 비중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2021년과 2022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해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력 제품 경쟁사들의 설비 투자 확대 효과가 내년 중이나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제품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성디에스의 성장세도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영경 수습기자 noon@

(7월 셋째 주 청약접수 일정)

일정	시도	단지명
19일	서울	신림 스카이하파트
20일	경기	용인 서희스타힐스 포레스트
	대구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충남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충북	오창 반도유보라 퍼스티지	

/리얼투데이